

野, 1월 임시국회 소집 '동상이몽'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선거제 개혁 불씨 살리기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사태' 특검·청문회 개최 공세

지난해 시작된 '12월 임시국회'가 곧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일부 특위를 제외한 국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이다.

이처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태우·신재민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을 고리로 정쟁을 하기 위한 야권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며 "작년 말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작년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와 관련, "정개특위가 개혁안을 계속 논의 중이고,

필요할 때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등이 특검에 대한 성의 있고 적극적인 태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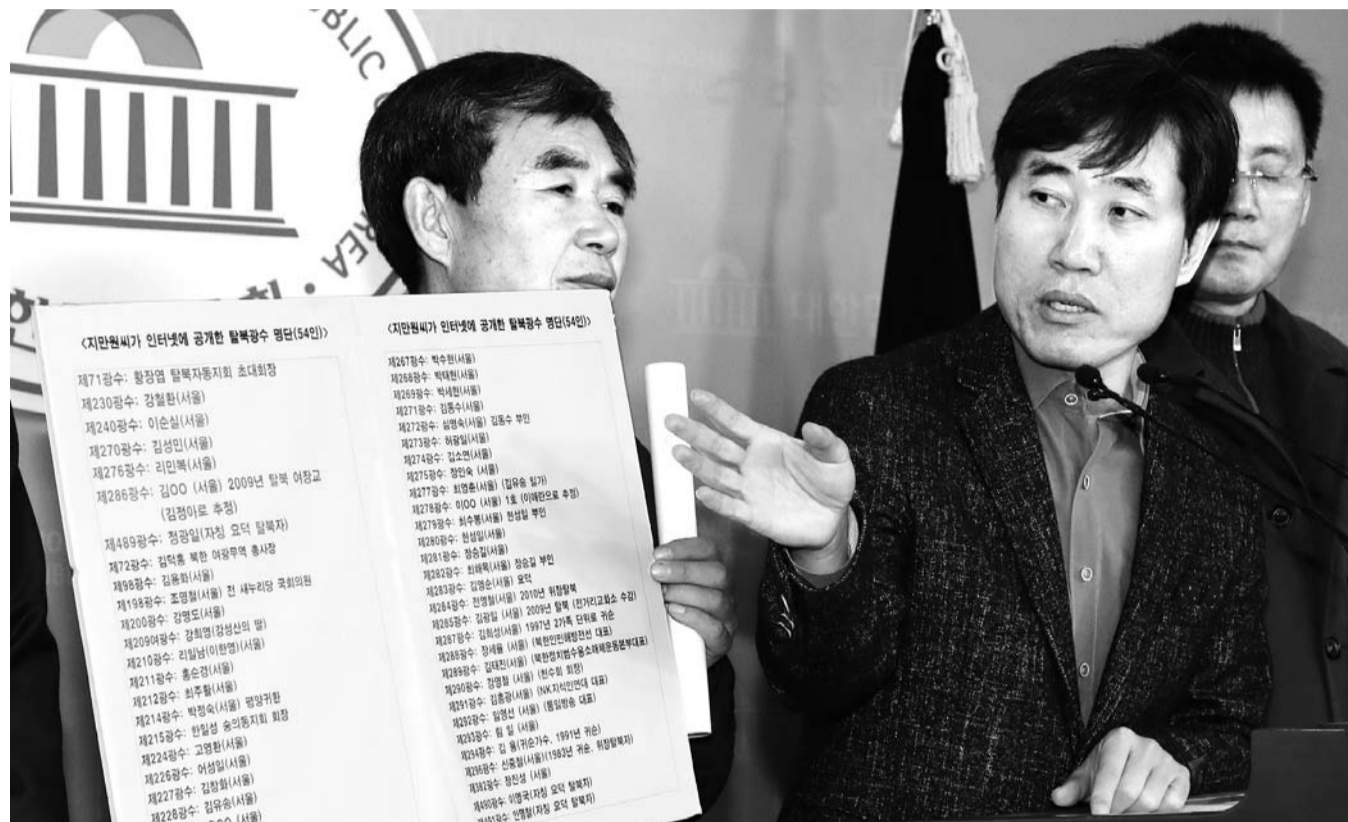
명을 해야 야당 공조 아래 1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다"며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국회가 소집조차 안 된 채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는 상황을 지켜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쳤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문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은 만큼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당연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으로, 신뢰를 갖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만큼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한 한국당의 협조를 받는 대신 특검 추진에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탈북민들 지원원 집단 고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탈북민들이 13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원원 세에 대한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원원씨가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정치권 新 전쟁터 '유튜브'

유권자 접근성 탁월해 차세대 플랫폼 부상...구독자 쟁탈전 가짜뉴스 감별·전문가 대담·법안설명 등 킬러 콘텐츠 경쟁

정치권에 유튜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어 뛰어난 유권자 접근성을 바탕으로 유튜브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하자 여야 각 정당, 나아가 의원들은 너도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바람에 불을 댕긴 것은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누리TV'로 처음 개설된 오른소리는 구독자가

13일 현재 4만3000여명이고, 동영상 평균 조회 수가 3000~4000회를 넘는다. 현 정부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열루뉴스'와 '문재양 119', 현안을 관련 상임위원이 쉽게 설명해주는 '지식총선소'라는 것이 힘이다', 지도부의 현상 행보를 전달하는 '현장 토크' 등이 오른소리보다 내세운 킬러콘텐츠다. 오른소리는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휴대전화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찍어 올리는 '생생한 목소리' 코너를 최근 신설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공식 유튜브 채널 '썸'의 개국으로 주격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썸의 구독자 수는 경쟁 채널인 오른소리보다 적은 2만6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유튜브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썸 개국 당시 북면래퍼 '마미손'을 패러디해 최재석 의원이 분홍색 복면을 쓰고 랩하는 영상으로 눈길을 끈 데 이어 최민순 환경지사가 눈을 가리고 한우 부위를 감별하는 영상, 강병원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의 토크쇼 '콜라보' 사이드 우리 이리 싸이다' 영상, 법안설명 코너인 '맞춤법' 등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14일엔 이혜찬 대표가 방송인 강성범씨와의 대담에서 거침없는 입담을 발휘하는 영상도 업로드 했다.

개별 의원들의 유튜브 방송도 활발하다. 구독자 수를 보면 바른미래당 이연주

의원의 '이연주TV'가 7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박용진TV' (5만4000여명), 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자유의 힘' (5만3000여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SNS 강자인 박지원 의원도 유튜브 방송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원외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홍 전 대표의 'TV홍카플라' 구독자 수는 23만명을 넘기며 보수진영의 대표 유튜브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방영되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1만명을 넘어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 한국당 당권경쟁 가세?

이번주 입당

보수진영의 유력한 잠재 대권주자가 당권주자로 평가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초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 내의 잠재적 당권주자들의 정당대회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당권경쟁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예정된 정당대회에 출마할 당권주자는 황 전 총리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심재철·정진석·정우택·조경태·주호영·김성태·안상수·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10여명이 거론된다.

차기 당 대표는 임기가 2021년 2월말까지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할 뿐 아니라 2022년 대선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때문에 당 내에서는 당권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차기 대선을 노린 '대권도화령'과 2020년 총선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관리령'이 대표적이다.

'대권도화령'은 당 대표로서 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힘으로 대권까지 가겠다는 전략이다. 황 전 총리의 경우 당내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당권 도전부터 뛰어들어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조언을 주변으로부터 들어왔다. 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전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프레임이다.

반면 '관리령'은 대권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권주자가 당 대표로 나설 경우 견제심리 때문에 범보수 대권주자의 수혈이 어렵고, 당내 반대세력 흔들기에 휘둘러 계파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도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밀려는 중진 다선의원 중 일부는 실제로 이런 프레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조국 "개혁과제 매진...SNS 줄일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간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로 이용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던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민정수석 부임 후 전면 중단했다가 여러 이유로 논란을 감수하고 지난 5개월간 제한적 방식으로 재개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고 적었다.

기 1/3이 지나고 새로운 비서실장이 부임해 제2기 청와대가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점을 맞아 저는 2017년 5월의 초심으로 돌아가 민정수석실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이 공간에서 소통 해주신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한다"면서 "2019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YS 차남 김현철 민주당 탈당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새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지난 12일 입당 약 1년 8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게시했다.

김 상임이사는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짧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통일 문제를 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협화음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의 충돌은 많은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현 정책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 수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전화를 통해 "탈당계는 오는 14일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상임이사는 19대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산적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본 투자는 고액의 미배출 통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호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메르헬 정문 바로 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질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